

#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해제에 따른 국내전자업계의 영향 및 대응전략

대우경제연구소

정부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역조 개선과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지난 81년부터 그동안 시행해 왔던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향후 2000년까지 완전 폐지할 예정이다.

수입선다변화제도도 지난 67년부터 실시해 온 수입기별공고제를 81년에 수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취지는 우리나라와의 무역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의 수입품 중 여타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공고함으로써 수입대상국을 다변화하려는 것이었다. 동제도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나 무역수지개선 및 국산화촉진과 기술이전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자주) 본고는 최근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해왔던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해제에 따른 주요산업별 영향분석을 대우경제연구소 산업경영연구본부 전자정보팀 도철환선임연구원이 특집진단형식으로 “월간산업과경영”에 게재한 것을 편집한 것임

그러나 최근들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전제조건으로 동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국내시장개방을 다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대내외 무역환경변화와 국내업계의 경쟁력 실태를 종합검토했던 결과 동제도를 1999년 말까지만 유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1993년에 제시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258개 규제 품목을 매년 10%씩 해제하여 1998년에는 50%만 남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번 방침변화에 따라 해제시기를 당초의 계획보다 앞당기어 1996년 7월 현재 152개 규제품목을 1999년까지 모두 해제하기로 하였다.

금년들어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와 대일무역수지의 기록적 악화는 동제도의 조기해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품이 품질경쟁력, 기술수준, 브랜드이미지, 수

요자만족도 등에서 일본에 비해 아직도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3년 반내에 이에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키워 나가야 하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 1. 전자산업의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운용현황

### 1) 대일 무역수지 현황

국내 전자산업은 대일 수출규모보다 대일 수입규모가 훨씬 상회하는 전형적인 대일 수입의존형산업으로서 '95년의 대일 무역적자는 무려 34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체 무역수지에서 전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의 41.2%에서 '95년에는 21.6%로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기계류 등 타산업에서의 대일 수입이 대폭 늘어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문별로는 가정용전자만이 소폭의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산업용전자나 전자부품은 각각 18억달러 내외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용전자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경쟁기반이 워낙 취약한데다 방송용카메라 및 계측기기 등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품의 국내수요가 확대되어 적자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2) 동제도의 운용 현황

'96년 6월말 현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전자제품은 총 26개(HS10단위 기준)로 전체 지정품목 162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계품군별로 구분해 보면, 가전이 15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산전은 9개 품목, 전자부품은 2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품목 수는 90년대 초반까지는 해마다 소폭 늘었으나, UR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해제품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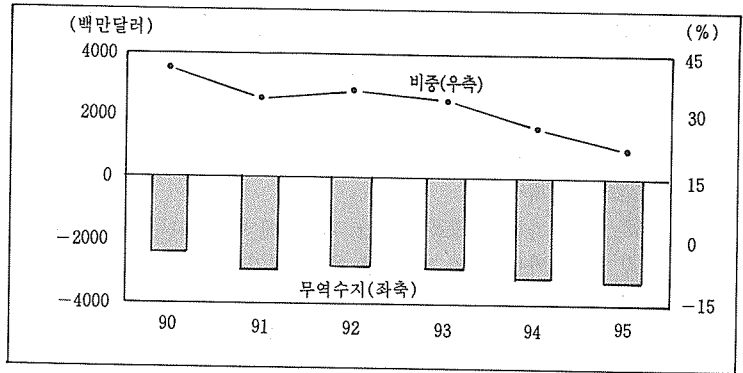
년도별 지정품목의 수입액을 살펴보면, '95년의 수입액은 19억7천만달러로 '90년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일 수입액은 '93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94년 이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로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웨이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

### 전자제품의 수입선다변화 지정품목 수 추이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품 목 수	35	38	41	42	38	34	26
비 중 (%)	13.1	14.7	16.0	16.3	15.8	16.7	16.0

자료 : 한국관세연구소, 「HS종합편람」, 각년호

## 전자산업의 대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정품목의 대일수입 비중은 '90년의 55%에서 '95년에는 32%로 크게 낮아져 대일 수입억제는 물론, 수입선전환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2. 해제 예상 품목별 우선순위

정부는 '96년 6월에 발표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안>을 통

해, 동제도는 '99년말까지만 유지하고, 2천년부터는 완전 철폐하기로 하였다. 각 품목의 해제 시기는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은 품목부터 우선해제시키되, 선정기준은 국내 내수시장 규모가 작거나, 일본으로부터의 예외수입년중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밥솥(8516602000)과 비디오 게임기(9504100000), 자동차용 라디오카세트(8519931000) 등 9개 품목은 '98년 '99년 상반기에

### 수입선다변화지정 전자제품의 수입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90	'91	'92	'93	'94	'95
전자제품 수입액 (A)	9,849	11,245	11,650	12,266	16,221	22,082
지정품목 수입액 (B)	986	1,100	991	1,132	1,504	1,974
비중(B/A)	10.0	9.8	8.5	9.2	9.3	8.9
지정품목대일수입액 (C)	537	581	447	428	511	632
비중(C/B)	54.5	52.8	45.1	37.8	34.0	3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리콘이퍼(3818001000)와 가정용이 많은 품목부터 우선 해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현

전자제품의 수입선다변화품목 현황('96년 7월 현재)

H S 코드	품 목 명
3818001000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8471702010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버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
8517210000	팩시밀리
8518400000	가칭주파증폭기 다만, 가정용에 한하며 진공관식은 제외
8519931000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테크 메카니즘 포함, 아날로그식에 한함)
8519993010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19993090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8521102000	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폭 12.7mm 이하)
852190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8525207030	휴대용의 무선전화기(차량용 기능이 있는 휴대용의 것 포함)
8525301000	녹화용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8527132000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8527212000	디스크형의 레이저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다만, 기록장치와 결합된 것은 제외
8527311030	기타의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컴팩트디스크와 아날로그식카세트형의 결합기기에 한함)
8528129050	칼라텔레비전 수상기(수상기의 대각선 길이가 53.34cm이상 63.50cm 미만의 것)
8528129060	칼라텔레비전 수상기(수상기의 대각선 길이가 63.50cm 이상의 것)
8536509000	전자개폐기(마그네틱 스위치)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의 것)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컴팩트형 포함)에 한함
9017100000	만능계도기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다만, 칼라혈류영상차단기는 제외
9033000000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용융금속의 온도, 산소, 탄소측정을 위한 소모형센서 포함) 및 동 부분품
9405609000	기타의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950410000	비디오게임 용구

자료 : 한국관세연구소. 「HS 종합편람」, '96년판

재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25개의 전자관련품목 중에서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2개 품목에 대해 지정해제 시기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시장 규모가 작고, 일본으로부터의 예외수입이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군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꼽을 수 있

며, 그 다음으로는 내수규모와 예외수입이 작은 제품군, 내수규모와 예외수입이 큰 제품군이며,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내수규모가 크고, 일본으로부터의 예외수입이 작은 품목)은 다변화품목에서 가장 늦게 해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을 통해 나타난 품목별 해제 시기를 전망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먼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8471702010)와 현금자동지불기(8472901010)등 5개 품목은 '97년중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밥솥(8516602000)과 비디오게임기(9504100000), 자

동차용 라디오카세트(8519931000) 등 9개 품목은 '98년 및 '99년 상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리콘웨이퍼(3818001000)와 가정용 VTR(8521102000) 등은 '99년 하반기중으로 팩시밀리(8517210000)와 21인치 이상 칼라 TV(8527129050, 8528129060), 휴대용 무선전화기(8525207030) 등 5개 품목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장 늦게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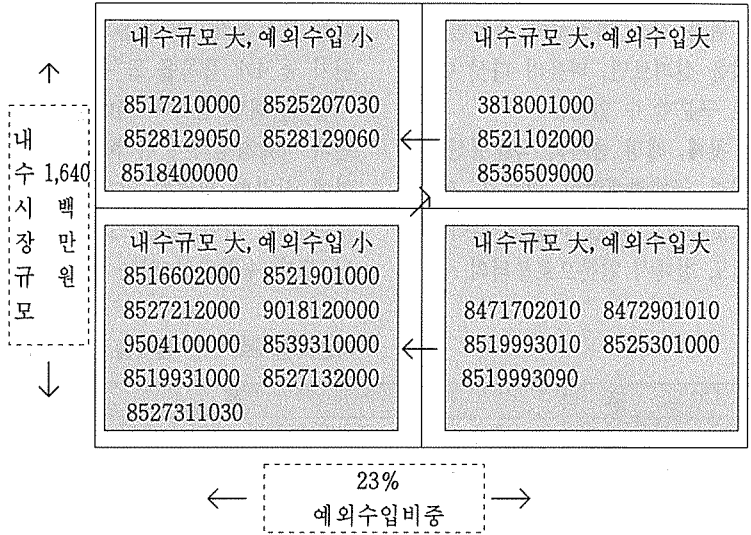
#### 1) 과거 동제도의 운용에 따른 품목별 영향 분석

'91년부터 '95년동안 다변화에 서 해제된 품목중에서 통계가 입수가능한 13개 품목의 수입동향을 보면, 다변화품목에서 대거 해제되기 시작한 '94년 부터 수입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 13개 품목의 수입액은 '90년의 49백만달러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94년에 84백만달러로 급격히 늘어났고, '95년에는 1억 4천만달러로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동기간의 대일 수입액도 '94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미미하며, '95년에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에서, 수입선다변화 해제는 해당품목의 수입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97년 이후 전자제품별 다변화지정 해제 시기 전망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직접수입보다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도 대부분의 품목이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된 후에도 대일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비중이 작아진 품목이 많았다.

다만, 흑백 비디오튜너(8528203000)나 전기보온밥통(8516791000), 디지털 방식의 카스테레오(8527213000), 칼라 비디오튜너(8528104000) 등이 다변화에서 해제되면서 대일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수입규모가 작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 2) 품목별 영향 전망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에 따른 품목별 영향은 해당품목의 국내생산 기반과 국제경쟁력 여하에 좌우된다. 또한,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작을수록 동제도의 철폐로 인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영향평가를 위한 지표로 국내생산 기반은 해당품목의 국내 생산액이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제경쟁력은 해당품목의

'90년 이후 해제 13개 품목의 수입 및 對日 수입비중 추이

(단위 : 천달러)

구분	'90	'91	'92	'93	'94	'95
전체 수입	48,625	21,948	20,972	18,487	83,783	138,827
대일 수입	39,338	14,448	5,049	5,735	28,469	23,141
대일 수입 비중 (%)	80.9	65.8	24.1	31.0	34.0	1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하고, 이밖에 對일본 수입비중도 고려하였다.

위와 같은 가정하에 품목별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 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도 낮아 동제도 철폐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4개 품목을 들 수 있다.

둘째,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 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취약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일본으로부터 상당 부분 수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실리콘웨이퍼, 플로피디스크, 전자개폐기 등 6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국내생산 기반과 對일본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국내 생산제품의 국제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으로 전기밥솥, 가청주파증폭기 등 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 다변화철폐로 인한 품목별 영향 전망

구분	품목
매우 심각한 타격	국내생산 기반 약, 국제경쟁력 약, 대일본 수입비중 소
	○ 8519931000 카세트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 8525207030 휴대용 무선전화기
	○ 8539310000 형광램프 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각한 타격	국내생산 기반 약, 국제경쟁력 약, 대일본 수입비중 대
	○ 3818001000 반도체제조용 실리콘웨이퍼
	○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드라이버
	○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 8519993010 자동차용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 8519993090 기타 디스크형의 음성재생기기
	○ 8536509000 전자개폐기(마그네틱 스위치)
큰 영향	국내생산 기반 약, 국제경쟁력 약, 대일본 수입비중 소
	○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 포함)
	○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가정용에 한함)
	○ 8527132000 디스크형의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 9504100000 비디오게임 용구
약간 영향	국내생산 기반 강, 국제경쟁력 강, 대일본 수입비중 소
	○ 8517210000 팩시밀리
	○ 8521901000 디스크형의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8527212000 자동차용 CDP
	○ 8527311030 CDP복합형 하이파이 콤포넌트
	○ 8528129050 18~25인치 칼라 TV
	○ 8528129060 25인치 이상 칼라 TV
별다른 영향 없음	국내생산 기반 강, 국제경쟁력 강, 대일본 수입비중 대
	○ 8521102000 가정용 VTR
	○ 8525301000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넷째,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 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입확대의 여지가 남아 있는 품목으로 팩시밀리, 18인치 이상 칼라 TV, 자동차용 CDP 등 6개 품목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기반과 국제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미 일본으로부터도 수입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 동제도의 철폐로 인해 받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으로 가정용 VTR과 녹화기용 텔레비전 카메라가 이에 해당된다.

### 3) 동제도 해제 이후에 예상되는 변화

#### 가. 동남아산 일본 가전제품의 급속한 유입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일본 전자제품의 자유로운 국내 유입을 의미하며,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고가의 제품보다는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의 일본제품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제도의 철폐에 앞서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제도를 개정하여 제3국산 일본제품 수입을 허용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96년 7월부터 제3 국산 일본제품의 수입이 허용되는 휴대용 라디오겸용 CDP, 자동차용 라디오겸용 CDP, 25인치 미만 칼

동남아지역의 전자부품 및 원재료의 코스트경쟁력 현황  
(샤프의 경우)

품 목	부품/원재료	조 달 국	지 수
칼 라 TV	트 렌 스 류 너 리 모 콘	중 국	75
		한 국	69
		말 련	83
		한 국	86
		말 련	71
	한 국	92	
V T R	평면프린트기판	상 가 폴 한 국	89 89
전 자 렌 치	마 그 네 트 론 턴 테 이 블 모 터	태 국	81
		미 국	82
		태 국	83
		영 국	94

주: 지수는 일본을 100으로 한 것임  
자료: 노무라종합연구소, "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조변혁을 가속화하는 전자산업" '95. 5

라 TV 등은 동남아산 제품이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동남아지역의 가장 큰 비교우위는 코스트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 조립공정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공장설비투자 부담이 적다는 잇점 이외에도 부품이나 자재의 현지조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칼라 TV와 하이파이 오디오, 거치형 VTR 등은 현지조달비율이 90%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원재료 및 기초부품 등 보다 전공정단계에까지 현지화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산 일본제품의 국내시장 유입은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일제 브랜드 선호의식과 맞물려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업진흥회의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산 제품의 국내판매가격은 국산제품의 70~80%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앞서 있으며, 외국 가전제품의 선호도 조사에서도('95년 7월), 전체 응답자의 61%가 일본 가전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생활습관에 따라 차별화가 용이해서 한국형 제품개발로 승부할 수 있는 백색가전제품보다는 브랜드에 크게 좌우되는 AV기기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 나. 유통업중심의 유통구조로 재편이 촉진

국내의 가전유통구조는 제조업체의 대리점이 소매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유통계열화업종으로서, 대리점은 계약관계

에 있는 메이커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매제를 띠고 있다. 대부분의 소매유통이 그렇듯이 가전대리점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대외개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96년부터는 국내 유통시장이 대외에 전면 개방됨으로써 국내의 가전유통채널은 외국의 가전유통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일본의 가전전문유통업체인 가전양판점의 국내 진출은 국내 가전유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영향은 수입선다변화제도가 유지되는 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유통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주력 가전제품이 수입선다변화제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상품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품질면에서도 월등한 AV 제품의 대다수가 다변화품목으로 묶여 있는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제도의 철폐는 일본 가전양판점의 진출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 국내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품구성상의 장벽이 없어지는 외에, 저가의 동남아산 일본제품까지 들어오게 됨으로써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전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가전양판점은 국내 가전유통시장에 진출할 경우, 진출 초

일본 가전양판점의 국내진출시 예상되는 상품전략

상품군	품목구비	수입국	전략전개시기	수익성
톱 브랜드	권위상품 (고품질, 고가)	일본	진출 초기	
양판품	이윤추구상품	NIEs	진출 후기	
할인품	고객유인용상품 (저품질, 저가)	ASEAN, 중국	진출 초기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기에는 국내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면서 유통망을 확보해 나간 다음, 점차 양판제품을 통한 이윤 추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전략도 진출 초기에는 고품질, 고가격의 일본산 AV 제품이나, 저가의 동남아산 일본 제품으로 국내시장을 우회 잠식한 뒤, PB상품 등의 양판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내제품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변화 해제 이전에, 원산지증명 확인품목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동남아산 일본제품의 국내 상륙이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 가전대리점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영세규모의 대리점을 중심으로 도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나아가 제조업 중심의 계열화체제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가전양판점 및 국내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의 교섭력이 가전제조업체와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제품구매에서부터 가격 결정에 이르기까지 유통업체중심

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 다. 해당제품 및 자본설비의 국산화 지연 우려

국내 전자산업은 최종 제품의 가공조립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주요설비나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비중이 막대하며, 그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전기전자업종에서 사용중인 자본설비의 국적을 살펴보면, 일본 제품이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산 자본설비로 41.4%, 미국산 자본설비는 1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시행 목적의 하나는 경쟁력있는 일본 자본설비의 수입대체를 통해 국산화를 촉진하고, 일본 전자제품의 직접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국산개발대상품목의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 및 소요부품의 수입이나 국산대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때 등 일부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동제도의 철폐로 국내 전자산업 자본설비의 대일 종속은 더욱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는 기계설비산업의 낙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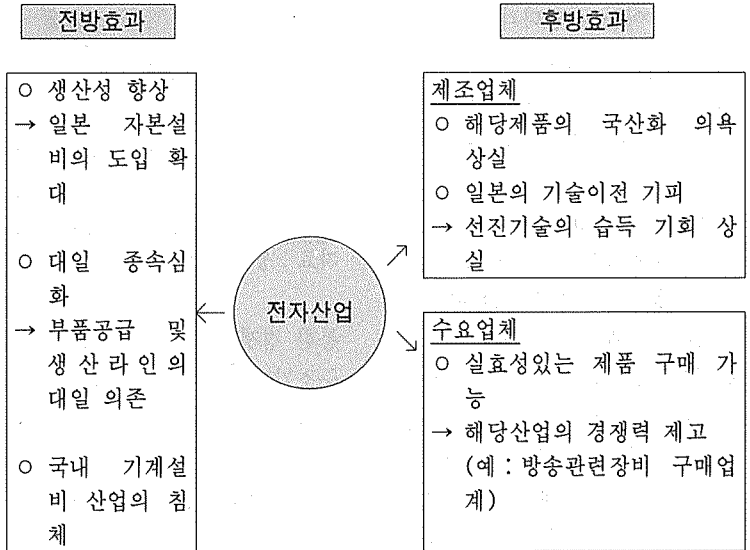
국내 전자제조업체의 경우, 자본설비의 수요자로서 일본 자본설비의 도입 확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부품 및 생산라인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대일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자제품이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될 경우에도 제조업체와 수요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일본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해당제품의 국산화 의욕이 상실되고, 일본의 기술이전 기피로 선진기술의 습득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비록, 8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국산화투자로 부품국산화율이 크게 높아졌으나, 아직도 핵심부품은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요업체의 경우에는 다변화 해제로 경쟁력있는 일본제품의 구매가 허용되면서 원가절감 및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여타국에 비해 월등한 방송관련장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TV, 지역민방 등 방송관련장비 수요업체들은 본격적인 영상미디

다변화 해제로 예상되는 전자산업의 전후방 관련효과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어 시대에 대비하여 일본산 장비의 수입허용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선별적으로만 허용해왔기 때문에 업계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었다. 따라서, 동제도의 철폐는 곧바로 일본 방송장비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 국내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채산성 악화

저가의 동남아산 제품의 유입은 국산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기업이나 중소부품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업체가 동남아에 주력하고 있는 AV기기나 스피커, 코일, 소형 모터류와 자기헤드 등 동남아의 생산비중이 높은 전자

부품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품목에서는 최근의 수입선다변화 해체 움직임에 맞춰 벌써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칩 부품업체인 무라타는 시장 주력품목의 국내 공급가를 20~50%까지 대폭 인하했으며, 클라리온이나 신와 등 테크메카니즘업체들도 국내 공급가를 34%까지 낮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다변화품목으로 보호받고 있는 AV기기도 향후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마찬가지로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업체도 국내시장 유지를 위한 가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업체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는 오디오업체의 경우,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인하가 아닌 외부요



인에 의한 가격 인하는 곧바로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가격 흡수력이 있는 가전 3사 보다는 오디오 전문메이커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 국내 대형가전업체의

OEM수입 확대에 따른

중소업체의 경영난 악화

국내시장에서 동남아산 저가제품과의 경쟁을 위해 가전 3사를 위시한 대형 가전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OEM수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생산에 따른 코스트 경쟁력 저하를 회피하면서 철저한 브랜드관리를 통한 국내시장에서의 이미지 향상을 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은 국내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시장 비중이 작고, 이미 가전 3사가 국내업체로부터 OEM공급을 받고 있던 소형 가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산 OEM제품의 국내판매 확대는 국내 대형 가전업체에 OEM공급하고 있던 국내 중소가전업체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특히, 소형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에 크게 좌우되며, 전기보온밥솥이나 전기면도기 등 일부 품목은 외산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도 상당히 높은 반면, 국내의 중소 가전업체는 한국형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여력과 전문인력이 극히 취약해 차별화를

주요 제품의 부품국산화율 및 주요 수입의존부품

(단위 : %)

제 품	국산화율	주요 수입의존부품
대 형 칼 라 TV	75	대형 벌브, 형광체, Invar Mask
V T R	70	전용IC, 소형모터
캠 코 더	50	광학부품, CCD, IC
V D P	65	IC, 픽업
반 도 체 장 비	16	
반 도 체 재 료	33	

자료 : 통상산업부

통한 경쟁도 사실상 어려워 국내 중소가전업체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4. 기업의 대응 및 정책제언

1) 기업의 대응

가. 부품국산화율의 제고

국내 전자산업은 완제품의 가공조립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부품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핵심부품은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부품국산화로 부품국산화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특히, 전자부품산업의 취약성은 전자재료산업까지도 취약하게 만들어 결국은 구조적인 악순환이 형성되어 있다.

향후, 다변화제도의 철폐로 일본의 핵심기술 이전 및 부품공급기피가 예상되며, 동남아산 범용부품에 대해서는 덤핑판매가 구사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전자산업의 대일

본 종속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발전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간의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를 통한 원가절감

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부품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바로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이다. 가전 3사를 주축으로 부품공용화 추진품목을 지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정된 부품에 그치고 있고, 원가절감액도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5년에 추진한 표준화품목은 칼라 TV의 전해콘덴서 등 15개 품목에, 원가절감액은 약 8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96년에 가전 3사가 추진키로 합의한 품목도 칼라 TV의 텍스트 스위치, 냉장고의 릴레이 등 18개 부품에 불과하다.

사실,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는 국내업체간의 제품차별화 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과제이다. 그러나, 성능상의 차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전사간의 부품표준화는 확대되어야 하며, 추진도·특경영자의 적극적인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상품목도 백색가전위주에서 벗어나 AV기기로도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 다. 대리점정책의 변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해제는 기존 가전대리점의 경쟁력약화로 연결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 가전양판점의 국내진출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구성과 비교구매가 가능한 혼매제를 비교우위로 판매제에 익숙해 있는 국내 소비자에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전제조업체로서는 자사제품의 시장을 유지하고, 외국유통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가전대리점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전대리점이 전문양판점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리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캠페인이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고객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대리점의 품목을 특

정제품에 집중시키는 전문점 정책도 양편을 무기로 하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마쓰시타가 (정보가전), (컨비니언스), (전화설비), (종합가전) 등을 두고, 계열점의 규모와 지역 및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또한 일정 지역내의 우수한 대리점을 중심으로 몇개의 대리점을 묶어 공동구매와 공동판촉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제조업체의 대리점 관리비용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한국적인 제품 Feature의 개발

대체로 수입이 구조화되어 국산품으로의 대체가 부진한 제품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제품개발에 한 발 앞선 국가들의 기술규격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요 선진국들은 독자적 제품규격이나 품질규격,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은 개별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제는 국내기업들의 축적된 생산기술로 제품의 기능이나 규격면에서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시도할 단계에 있다.

이 경우 제품 차별화를 원천에서 보장하는 기회 제공자(이를테면, 가정용기기의 경우 방송규격에 관련된 방송국, 전파의 송수신 시스템에 관련된 통신회사, 제품에 대한 전압이나 전류의 공급에 관련된 전력회사 등)와 기업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 2) 정책제언

가. 품목별 해제 시기를 예시 정부는 '96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 운영방안)을 통해, 동제도의 철폐시기를 '99년말로 확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기로 최종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대리점정책의 바람직한 변화

구 분	구 체 적 인 내 용	일 본 의 사 례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밀착형 경영</li> <li>○ 인적네트워크의 충분한 활용</li> <li>○ 고객정보관리, 생활제안, 고도의 서비스</li> <li>- 대리점의 전문점화</li> <li>○ 인기상품의 품목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상권의 강점 발휘</li> <li>○ 방문판매 강화</li> <li>○ 이벤트 개최</li> <li>- 마쓰시타의 (전문점경영 정책)</li> <li>○ 정보가전, 컨비니언스, 전화설비, 종합가전</li> </ul>
체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우수대리점의 선별 체인</li> <li>○ 공동구매, 공동판촉, 공동배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 체인 (마쓰시타), NASA(도시바), SSS(산요) 등</li> </ul>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해제일정은 '97년부터 매년 두차례씩(1월과 7월)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1월에는 25개 품목 내외를, 7월에는 그해의 무역수지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업계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해제 일정이 미리 예시됨으로써 업계 스스로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해제 시기 및 범위의 선정도 국내 시장규모나 무역수지 상황에 따르는 것보다는 핵심기술의 국산화 유무 등 해당업계의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원산지 확인제도의 신중한 운용

정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제도)를 통해 수입선다변화품목은 수입통관시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판정 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자관련 제품은 부가가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35%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국가나 주요 공정 및 핵심부품의 일본에서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핵심부품이 일본에서 제조된 것이라면 일본제품으로 표시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이러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 현황

품 목	기본세율 (%)	비 고
에 어 컨	20	LDP, 캠코더는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5%) CDP, DAT는 잠정세율 적용(기본세율의 75%)
냉 장 고	15	
세 탁 기	15	
칼 라 TV	15	
V C R	15	
오 디 오	15	
전 자 렌 지	15	
청 소 기	15	
전 자 계 입 기	15	

자료 : 재정경제원

제3국산 일본제품의 우회수입을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비록 해당 업계의 반발과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당초의 방침에서 크게 후퇴하였지만, 선진국의 압력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허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해당업계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입선다변화가 유지되는 '99년말까지 유예시키되, 제3국(특히, 동남아)으로부터의 우회수입 가능성이 적은 품목부터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 다. 특소세 인하

정부는 '77년부터 사치성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전자제품에 대한 특소세는 에어컨이 제1종 과세대상으로서 공장도 가격의 20%를 냉장고, 칼라 TV 등 그밖의 전자제품은

제2종 과세대상으로 공장도가격의 15%를 적용받고 있다.

예외적으로 LDP와 캠코더, CDP 등은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수출전략상 내수기반 확대가 필요한 품목으로 인정받아 기본세율의 70%인 10.5%를 '97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특소세 부과에 따라 기본세율이 15%인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21.45%의 제품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간접세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은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칼라 TV와 VCR, 오디오 등 일본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밀수제품의 비중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이와같은 고율의 간접세는 국내산업의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따라서, 다변화 해제를 눈앞에

두고 저가의 동남아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변화가 완전히 해제되는 2천년 이전에 특소세의 인하나 폐지를 통해 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국내 유통시장의 가격질서를 크게 흐트러 놓고 있는 일본 가전제품(특히, AV기기)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라. 부품업체의 대형화 유도

대량 생산을 통해 제품의 원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부품가격의 안정은 절대적인 명제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완제품 조립능력을 보유했으면서도 여전히 제품개발에 있어서는 일본제품의 모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신제품 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원자재(부품)가 국내에서 조달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근본원인은 국내 부품업체의 신제품 개발능력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데 있다.

결국 문제의 해결고리를 부품업체로부터 풀어가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내 부품기업은 규모면이나 인력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흔히 일컫는 대기업의 기술지원이란 것도 부품산업이 갖는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말이다. 대기업은 부품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완제품 생산업체인 까닭에 기술지원에는 엄연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존 완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부품산업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재정비에 장애가 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지원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대선진국 전자수출 급냉

미·일·EU 등 선진국시장에 대한 전자제품 수출이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회에 의하면 지난해 40~50% 씩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를 보였던 대선진국 전자제품 수출이 울들어 크게 위축,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일 전자수출은 지난해 60% 가까이 늘어났으나 7월중에 수출이 격감하면서 누계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가 감소한 25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컴퓨터를 비롯한 산업용전자제품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대일 수출유망제품으로 주목 받던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일제히 마이너스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EU 수출은 7월중 수출이 작년동월보다 40% 정도 감소세를 기록, 7월 말현재 수출이 39억 5,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대EU 전자수출의 60%를 차지하

고 있는 음극선관·반도체·축전기 등 전자부품이 수출 격감세를 보이고 있으며 컬러TV를 제외한 가전제품 수출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의 대EU 전자수출은 지난해 57.7%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75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37.3%의 수출신장세를 기록했던 대미 전자수출도 최근 수출이 위축되면서 수출규모가 작년동기와 비슷한 73억 1,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